



## 자유주의 정보 19-30

\*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\*

Kenneth P. Green,

Canada's dashed 'energy superpower' dream

9 January, 2019

### 물거품이 되어버린 캐나다의 '에너지 초강대국' 야망

연말에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2013년부터 몇 가지 오래된 연구자료들을 발견했는데, 그동안의 상황 변화에 매우 놀랐다. 2013년 앨버타에서의 대화는 '에너지 초강대국'으로서의 캐나다의 미래에 관한 것으로, 막대한 역청을 개발해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할 계획이었다. 당시 스티븐 하퍼 총리는 2006년 "캐나다를 '세계 에너지 강국'으로 건설할 생각"이라고 말했다.

BNN 블룸버그에 따르면, 유가 폭락, 석유 및 가스 부문의 관리비 부담, 캐나다가 미국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의 증가, 파이프라인에 대한 반대, 오타와, 앨버타, 그리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서의 좌경화 등 5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그러한 꿈이 좌절되었다고 한다. 블룸버그가 관찰한 바와 같이, 2014년 중반, 가격이 폭락하기 전 트럭 운전사들은 "연간 17만 달러 이상"을 만들 수 있었고,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영위할 수 있었다.

오일샌드 생산, 그리고 그에 연계된 수익과 고용에는 한계가 없었다. 그러나 2013년까지 문제는 커지고 있었다. 미국행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은 규제에 발목을 잡혔고, 캐나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. CIBC의 한 연구는 캐나다가 2012년에 석유 수입에서 약 250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고 인프라 적자를 해결할 때까지 앞으로 연간 150억 달러의 추가적인 손실을 더 볼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.

캐나다의 아시아 태평양 시장 진입에 대해 조사한 2012년도 프레이저 연구소의 연구를 보면, "구시대적인 규제 프로세스와 절차, 제1국가의 반대, 난해한 환경 검토 과정 등이, 석유를 서해안과 그 이상으로 수송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"는 사실이 밝혀졌다. 우리는 앨버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정부들에게 "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장 진출에 필요한 원유 수송 기반 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적, 규제적 개

혁을 이용하여 신속히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."

우리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속절없이 흔들었던 규제와 정부 개입의 확산을 목격했다. 북쪽 게이트웨이 파이프라인의 취소와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계속되는 반대가 그 예이다. 앨버타주의 새로운 계획은 석유를 운반하기 위한 철도차를 구매하려는 것이다. 이 모든 것은 투자자들의 신뢰감 하락과 맞닿아 있다.

2018년 10월 연구결과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, 쏟아지는 규제 외에도,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연간 조사를 검토한 투자자들의 반응에서 앨버타에서 석유 및 가스 개발에서 투자 억제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.

예를 들어, 2013년 조사 응답자의 14%가 앨버타의 재정 조건(임대료, 로열티, 생산세, 총 수입세)을 투자 억제 요인으로 꼽았다. 그리고 2017년에는 50%에 달했다. 앨버타의 재정 조건이 투자에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22%나 감소했다. 일반적으로 앨버타 세금에 대해서는, 2013년 전체 응답자 중 16%가 세금은 투자 억제 요인이라고 응답했고, 2017년에는 52%로 증가했다.

책상에서 낡은 파일들은 모두 정리했지만, 뒤돌아보면 에너지 강국이라는 캐나다의 꿈의 종말을 보는 것이었다. 규제 개혁에 대한 진전이 없다면, 그 꿈은 2006년 보다 더 멀리 떨어질 것이다.

번역: 이희망

출처: <https://www.fraserinstitute.org/article/canadas-dashed-energy-superpower-dream>